

울산 대왕암의 명칭과 유래

The Name and Origin of the Daewangam (Great King Rock) in Ulsan city

저자 (Authors)	신종원 Shin, Jong-won
출처 (Source)	지명학 18 , 2012.12, 215-243(29 pages) Journal of the Place Name Society of Korea 18 , 2012.12, 215-243(29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지명학회 THE PLACE NAME SOCIETY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90092
APA Style	신종원 (2012). 울산 대왕암의 명칭과 유래. 지명학, 18, 215-24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16 11:3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울산 대왕암의 명칭과 유래*

신종원**

국문요약

울산시 일산동 앞바다에 있는 대왕바위는 다른 이름으로는 龍墜岩이라고 하는데, 용이 승천하다가 그 바위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바다에 있는 신비한 바위가 龍이라는 믿음은 여기에서도 확인된다. 龍은 곧 海神이므로 이 神을 다른 말로 '大王'이라고 불렀다. 史料 및 땅이름에 '대왕'이 붙는 것은 바다뿐 아니라 江, 山, 神堂 등 여럿 있으므로 '대왕'은 일종의 보통명사다. 그럼에도 이를 실제 대왕으로 믿어 역사상의 어느 임금으로 비정한 저명한 예가 경주 시 감은사 앞바다의 대왕암이며, 삼국을 통일한 신라 문무대왕이 여기에 묻혔다고 한다.

울산 대왕암에 대한 언급은 정유재란 記文에 처음 나타나는데, '대왕'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없기 때문인지 韓末부터 1970년대까지는 대신 '大洋'岩이 유통되었다. 이 表記는 '大王'의 變化形·發展形이라 하겠다. 마치 '대왕바위'라는 異稱이 있듯이.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 '대왕암'의 이름이 復權되자 '대왕00'라고 부르는 근거를 모색하여 울산지역에서는 이를 문무대왕의 왕비가 묻힌 곳이라고 설명한다. 경주 대왕암의 亞流다. 이 王妃說의 취약점이

* 이 글은 2012년 5월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열린 학술대회 때 처음 발표하였고, 같은 해 10월 한국지명학회에서 다시 발표한 원고에다 각각 당일 見聞한 내용을 보충한 것이다. 두 학술대회 때의 토론자에게 감사드린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드러나자 火葬을 했다는 신라의 문무왕, 효성왕, 선덕왕 등이 차례로 그 후보에 오르곤 하였다.

울산대왕암=문무왕비 說은 鄉土誌나 지명유래집 등에 실리면서 成文的 권위를 갖게 되었고, 관광안내 등에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그 설명의 궁색함·모호함에 당연히 의문은 제기될 것이고, 관련 근거나 자료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지만 중국적으로는 神을 대왕이라고도 불렀던 우리말의 용례에 그 단서가 있다.

핵심어 : 울산시, 용추암, 대왕암, 대양암, 해신, 용, 문무왕, 문무왕비, 지명유래

1. 서론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에는 등록문화재 106호로 지정된 '蔚氣燈臺'가 명물이지만, 맑고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거대한 암석[대왕암]까지를 포함하면 가히 울산이 자랑할 만한 '울기공원'이었다. 이것이 지금은 '대왕암공원'으로 불리는데, 공원의 하이라이트는 등대에서 바위로 옮겨온 느낌이다. 그것은 근래까지 대왕암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무슨 계기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당연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에서 새로이 말하는 대왕암의 유래는 과연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그것이 경주 감은사 앞바다의 대왕암과는 어떻게 다르고, 그런대도 무슨 이유로 둘 다 같은 이름을 쓰는데에 대한 소박한 의문은 비단 관광객들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역사·지리·국어학적

관점에서도 하나의 연구거리가 된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선 경주의 대왕암이 과연 문무대왕의 海中陵 즉 물속무덤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울산의 대왕암은 지역적으로 가까운 경주의 그것으로부터 直·間接的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울산 ‘대왕암’ 명칭이 한동안 잠복하였던 저간의 사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이러한 단편적 연구가 지명유래를 밝히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면 연구자로서는 더 없는 보람이 될 것이다.

2. 경주 대왕암의 문무왕 海中陵說

바닷속 왕릉설에는 사료 취급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별개의 사서일 뿐 아니라 문무왕(661~681) 장례에 대한 기술 내용도 서로 다른데 이를 동일선상에서 논하였다. 둘째, 《삼국사기》 신라본기7, 문무왕 말년 기사(이하 ‘문무왕기’로 줄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였을 뿐 아니라, 성격을 달리하는 본문과 협주를 구분하여 보지 않았다. 셋째, 《세종실록지리지》 이후의 각종 지리지나 문집 등 후대 자료를 가지고 고려시대의 원전 해석에 이용하는 등 연구 방법상의 오류가 있다. 사료는 다음과 같다.

① 가을 7월 1일에 왕이 돌아가셨다. 시호를 문무라 하고 여러 신하들이 유언에 따라 동해 어구 큰 바위 위에 장사지냈다. 민간에서 전하기를, 왕이 화(化)하여 용이 되었다 하고 또 그 바위를 가리켜 대왕석이라 한다. 왕의 유언은 다음과 같다.¹⁾(《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7, 문무왕 21년)

② (朕)이 임중하고 나서 열흘이 지나면 곧 '고문' 바깥의 뜰에서 서쪽나라의 의식에 따라 화장하라²⁾ (위와 같음)

③ 대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1년만인 영릉 2년 신사년에 돌아가시니, 유언을 따라 동해 중의 큰 바위에 장사지냈다. 왕이 평소에 항상 지의법사에게 이르기를 “짐은 죽은 뒤에 호국대룡이 되어 불법을 받들고 나라를 수호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법사가 말하기를, “용이란 축생의 과보가 되는데 어찌합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나는 세상의 영화를 싫어한 지 오래지라, 만약 나쁜 응보를 받아 축생이 된다면 짐의 뜻에 합당하다.”고 하였다.³⁾ (《삼국유사》 기이, 문무왕법민)

④ 제31대 신문대왕의 이름은 정명이며, 성은 김씨다. 개요 원년 신사년 7월 7일에 왕위에 올랐다. 부왕인 문무대왕을 위해 동해 가에 감은사를 세웠다. 절 기록에는 : (아래 ⑤) 이듬해 임오년 5월 초하루에 <어떤 책에는 천수 원년(690년)이라고 했으나 잘못이다.> 해관 파진찬 박숙청이 아뢰기를, “동해 중의 작은 산 하나가 물에 떠서 감은사를 향해 오는데, 물결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이를 이상히 여겨 일관 김춘질 또는 춘일에게 점을 치도록 하였다. 그가 아뢰기를, “돌아가신 부왕께서 지금 바다의 용이 되어 삼한을 수호하고 계십니다. 4) (《삼국유사》 기이, 만파식적)

- 1) 秋七月一日 王薨 諡曰文武 群臣以遺言葬東海口大石上 俗傳 王化爲龍仍指其石大王石 遺詔曰 …
- 2) 屬纊之後十日 便於庫門外庭 依西國之式 以火燒葬
- 3) 大王御國二十一年 以永隆二年辛巳崩 遺詔葬於東海中大巖上 王平時常謂智義法師曰 朕身後願爲護國大龍 崇奉佛法 守護邦家 法師曰 龍爲畜報何 王曰 我厭世間榮華久矣 若羸報爲畜 則雅合朕懷矣
- 4) 第三十一神文大王 諱政明 金氏 開耀元年辛巳七月七日卽位 爲聖考文武大王 創感恩寺於東海邊<寺中記云 → 明年壬午五月朔<一本云天授元年 誤矣> 海官波珍喚朴夙清奏曰 東海中有小山 浮來向感恩寺 隨波往來 王異之 命日官金春質<一作春日>占之曰 聖考今爲海龍 鎮護三韓 …

⑤ 문무왕이 왜병을 진압하고자 이 절을 처음으로 짓다가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시어 바다의 용이 되었다. 그 아들 신문왕이 왕위에 올라 개요 2년(682)에 끝마쳤다. 금당 섬들 아래에 동쪽을 향해 구멍 하나를 뚫어 두었는데, 이는 용이 들어와서 서리고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대개 유언에 따라 유골을 간직한 곳을 대왕암이라고 하고, 절을 감은사라고 이름했으며, 뒤에 용이 나타난 것을 본 곳을 이견대라고 하였다.⁵⁾ (절 기록)

⑥ 불국사의 동쪽 봉우리에 올라서 동쪽 바다를 바라보고 감응사에 들러서 용혈을 보고 이견대에 올랐다가 배로 대왕암에 이르렀다. 역시 동해의 기묘한 장관이었다. (《동문선》 제51권, 이승인의 초옥자전 병찬)⁶⁾

[표1] 문무왕 장례 전설의 생성·발전

	文武王紀	文武王紀의 俗傳 文武王法敏·萬波 息笛條	(삼국유사 王曆) 萬波息笛條의 寺中記	
(火葬)	○			大石上
爲龍		○		大巖上
鎮倭			○	(海中) 歲骨
話素	→		→	葬地

→ : 전설의 생성·발전

- 5) 寺中記云 文武王欲鎮倭兵 故始創此寺 未畢而崩 爲海龍 其子神文立 開耀二年畢 排金堂砌下 東向開一穴 乃龍之入寺旋繞之備 蓋遺詔之藏骨處 名大王岩 寺名感恩寺 後見龍現形處 名利見臺
- 6) 上佛國寺之東峯望扶桑。游感應寺窺龍穴。登利見臺。舟至大王嶼。亦東海之奇觀也。(李崇仁, 草屋子傳并贊)

[표2] 대왕암의 存在樣相

	→	→
爲龍	大王岩	利見臺下 〇〇步
관념의 세계		實在의 세계
+		

→ : 증거물의 추적 + : 설화의 완성

[표3] 神 觀念의 발전과 形象化

바 위	↔	대왕바위	↔	문무대왕
자연물	↔	物神	↔	人格神

→ : 神 觀念의 발전 / ← : 神의 形象化

3. 수많은 대왕 유적

1) 사료에 보이는 대왕⊕ (바위, 갯가, 숲)

① 大王岩. 雲梯山頂에 있다. 縣의 남쪽으로부터 10里 떨어져 있다. 바위가 갈라진 틈으로 샘물이 솟아오른다. 가물 때 비를 빌면 곧 효험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영일현, 고적조)

② 또 사비 강가의 양쪽 언덕은 마치 병풍 같은데 백제왕이 매번 놀러 와서 노래하고 춤추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大王浦라고 부른다. (《삼국유사》 기이, 남부여·전백제조)

③ 大王藪. 崔詵의 龍壽寺記에 쓰여 있다. 龍頭山 남쪽에 한 마을이

있고, 그 洞口에 수풀이 있는데 마을사람들은 이를 大王藪라 부른다. 대개 우리 태조가 영토를 빼앗으러 南方에 이르렀을 때, 이곳에다 병사를 주둔시켰다가 사흘 뒤에 갔다고 한다. 지금도 이곳에는 喬木이 많고 풀이 무성한데, 나무꾼이나 꿀 베는 이들이 가까이 가지 못한다. 신령(神物)이 이곳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5, 예안현, 고적조)

2) 大王神(祠)

(1) 兄山

형산은 경주시 江東面 菊堂里 뒷산으로서 257미터 높이의 낮은 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 있다.

안강현의 동쪽 21리에 있다. 신라시대에는 北兄山이라 불렀으며 中祀를 거행하였다.

《삼국사기》 제사지에는 중사의 하나로서 ‘北兄山城(大城郡)’이 나온다. 국방상의 중요성 때문에 나라제사의 대상이 되었겠지만 산 자체가 聖所다. 다음 예가 참고 된다.

신라 중사 가운데 四鎮의 하나로서 북쪽에는 熊谷岳(比烈忽郡)이 있다. 이것은 고려시대 때 폐하여 그 뒤 ‘웅곡’이란 지명은 자취를 감춘다. 비열홀 즉 후대 安邊의 鎮山은 鶴城山이다. 따라서 웅곡악은 곧 학성산으로 판명된다. 이 산에 城隍祠가 있는데 ‘宣威大王之神’을 모신다. 재래의 (웅곡)岳神이 성황신으로 발전하였는데 곧 선위대왕이다. ‘학성’이나 ‘선위’는 후대의 漢字化된 이름이고, 웅곡악은 대왕을 모시는 산 곧 神山이다. ‘대왕’ 역시 한자말이기는하지만 ‘성황’보다는 더 토속적이고 先驅型이다.

신라 멸망후 북형산신의 중요성이 사라진 다음에는 단순한 산신 제사로 남는다.

형산. 大王神이다. 경주부 북쪽 30리에 있다.(《경상도지리지》경주, 守令行祭所)

수령은 형산의 神 즉 대왕에게 제사지내는데, 그에게는 학성산의 '선위'라든가 현풍 비슬산신의 별칭 '靜聖大王'같은 봉작명이 없다. 위 자료 이후로는 형산신을 대왕이라고 말하는 예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대왕은 쉽게 사리지지 않는다. 이러한 무명의 대왕이야말로 역사상의 특정 왕에 비정될 수 있는 好材가 된다. 형산의 山神=대왕도 海神=문무대왕과 같은 과정을 밟았다. 관련 설화를 인용해보겠다.

A. 경주의 산천은 당초부터 물이 나가는 水口가 없어 항상 진수령으로 환란을 겪으니 경순왕이 항시 말하하기를 생존시 백성에게 이롭게 한 일이 없으즉 죽어서는 마땅히 폐단을 제거하리라고 하셨다 한다. 그런데 隧道(길을 뚫는 것)를 封한 후 과연 東川에 黃龍이 扠연히 나타나 수백 리의 거리에 산을 뚫고 그 바위를 깎아온 境內의 물을 바다로 흐르게 하였다 하며 지금까지도 古老들의 전해오는 말에 김부대왕이 용으로 化하여 물길을 뚫어 이로움을 입었다고 殿誌에 적고 있으나

B. 형산강의 자취를 더듬어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신라 때 일인 바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되는 때 신라 조정에 물이 스며들어 항상 근심이 되어 퇴치할 것을 염두에 두었던 어느 날 대왕과 사위되는 雄將 사이 내기가 있기를 먼저 용이 된 사람이 용이 안 된 사람의 목을 치기로 하였다. 그 뒤 웅장이 먼저 용이 되어 동해 섬을 치고 울릉도와 독도를 칠려니 하늘에서 이 땅의 숨골이니 치지 말라는 계시가 있어 치

지 못했기에 동해는 섬이 별로 없고 서남해의 섬이 많다는 것이었다.

곧이어 옛날 영일군 신광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임신된 채 과부로 있었던 여인이 그 아이를 낳아 5, 6세에 이르러 살기가 어려워 어느 날 기계장으로 가다가 신광 어느 재에 당도해 가는데 업고 있던 아이가 몹시 울거늘 고개 밑에 (奈丹 북동편) 갈대가 무성한 가운데 집동 같은 구렁이가 길게 엮드려 있는 것을 보고 무서운 구렁이가 있으니 울어서는 아니 된다 하였더니 등에 업힌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용이다. 주고받고 하는 말에 세 번이나 용이라 했는 바람에 뱀은 호수 속으로 들어가더니 용이 되어 승천하면서 꼬리로 興海曲江을 치고 형산강을 치니 호수 물이 동해로 빠져 흘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백성들이 편안히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넓은 평야가 옥토로 바뀌어졌다. 다시 말해서 형산강와 흥해곡강을 쳐서 고인 호수가 바다로 빠지고 人家와 등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평정된 다음 翁胥끼리 다시 만나서 대왕이 내가 졌으니 의리상 목을 베어라 한즉 어찌 장인어른의 목을 베오리가 사양하였다. 어느 쪽이든 聖君의 의리를 헛되이 저버릴 수 없어 형식상 칼을 들어 콧등을 스치게 하여 상처 입은 흔적이 있고 꽤배로 낮이 창백하고, 웅장은 이겼다는 의기로 낮이 붉었다. (《경주김씨문간공파다산세보》, 235쪽, 다보사, 1991)

(2) 보령 옥마산

보령 옥마산(해발 601 미터)의 김부대왕 사당은 일찍부터 알려졌다. 《신증동국여지승람》²⁰, 藍浦縣 祠廟條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金傅大王祠：玉馬山頂에 있다.

15세기에는 이미 존재한 것인데 《여지도서》에는 ‘今無’라 되어 있으니 18세기경에는 폐허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19세기에 도 마찬가지였다. 1871에 출간된 《湖西邑誌》에도 ‘今

無'. 1895년의 《(湖西)邑誌》에는 '今廢'로 나온다. 산꼭대기라는 위치로 보아 시흥 군자봉의 사당 같은 위치였다고 짐작된다. 지금은 대규모 통신시설이 차지하고 있는데, 원래 이곳에는 봉수대 같은 것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고 하는데 뒤에서 보듯이 근거없는 말은 아니다. 그리고 봉수대 자리에 민속신당을 차려놓고 제사지내는 것도 드문 일은 아니어서 연구거리가 될 것이다. 김부대왕사를 관리하고 대왕을 모셨던 사람들은 남포현 사람들이겠지만, 이들이 어떤 부류의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 이 제사는 다시 이어졌다.

충남 보령군 남포면 제석리 지석굴 마을에는 김부대왕 깃발과 위패가 전해지고, 1930년대의 동제 때 실제 이들을 사용했다고 한다. 대왕깃발은 가로 2 미터, 세로 4 미터로 상당히 넓었다. 위쪽에 가로로 '朝鮮國', 세로로 '湖西玉馬山金傅大王之旗'라고 써어 있다. 이 깃발과 함께 보관하고 있는 판자에는 '道光十二年壬寅九月初吉日金傅大王之旗改件 미년초길일노당너리게흐라'라고 하였으니, 1832년에 고쳐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깃발 끝에 달았던 꿩털 묶음, 그리고 방울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판자에 쓰인 한글 내용은 현대 말로 '해마다 정초의 좋은 날에 깃발[幢]을 넣어뜨려라!' 쯤 될 것이다. 즉 깃발을 사용하는 시기와 방법을 기록해둔 것이라 하겠다.

옥마산정의 김부대왕사당과 지석굴 마을의 동제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볼 차례다. 제석리는 지석굴의 한자표기라고 하는데 마을유래를 들어보도록 하자.

帝釋里[제석굴, 제석동] 본래 남포군 북내면의 지역으로서 신라의 끝 임금 경순왕이 이곳에서 놀아서 김부대왕의 사당이 있다가, 옥마산으로 옮겼으므로 제석굴 또는 제석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

역 폐합에 따라 대야리·삼현리 일부를 병합하여 제석리라 해서 보령군 남포면에 편입됨. (《한국지명총람 4 - 충남편 상》, 391쪽, 1974)

지명유래를 믿는다면 본래 이 지역도 김부대왕의 연고지라는 이야기가 있는 모양이다. 옥마산으로 사당을 옮겼기 때문에 지석굴에는 《한국지명총람》 당시 사당이 없어야 맞다. 그런데 실재는 그렇지 않으므로 위의 지명유래는 옥마산정의 대왕사당을 이곳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사연이 와전된 것 같다.

4. 현존하는 대왕신앙

1) 大王藪와 흡사한 곳은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웃달내(上月川里)에도 있다.

大王嶺 : 웃달내 서쪽에 있는 산. 大王堂이 있는데, 단오날에 취떡을 해 가지고 제사를 지냄.

대왕뜸(대왕등) : 대왕등 산밑에 있는 마을⁷⁾

2) 강원도 원주 황골의 대왕신 : 大王祭文 “大王峴山神 … 擊名大王” → 元天錫과 태종의 故事를 府會하여 太宗大王이 됨. 口傳의 先驅型은 “神樹를 베어서 동티가 났다.”는 洞祭의 유래다. 老松에다 제사지내며 수구맥이 있다.

7) 《한국지명총람》 2, 강원편, 1967, 232쪽.

신종원, 〈襄陽郡 縣南面 웃달내 마을 大王祭 參觀記〉《강원지역문화연구》 1, 2001을 볼 것.

3) 강원도 영월의 대왕신 : 단종대왕

하동면 내리 지동마을의 단종을 모신다는 ‘큰당’이 있으나 ‘대왕님’은 ‘돌서낭’이며 최영장군을 모신다는 ‘수부당’이 있다. 와석1리의 서낭당 위패는 ‘城隍神位’(城隍神 = 성황대왕) → 대왕 → 단종대왕으로 발전하였다.

4) 강원도 인제군 남면 金富里 ‘대왕각’ : 경순왕=金傳大王을 모신다고 함

5. 울산의 경우

1) 정확한 역사관

경순왕은 無力과 아쉬움의 임금이다. 왕이며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기회도 없이 천년사직을 넘겨준 失機의 왕이다. 민중의 기억에 각인된 경순왕은 실제 그의 행적이나 역사에 관계없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들 이야기에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는다면 이야기의 무대는 곧 경순왕이 행차한 곳이 된다. 아래 경순왕 설화는 울산지역의 것으로서 더 이상 숭배의 대상으로까지는 진전되지 않았다.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은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울산 문수산에 사는 문수보살의 계시를 받아 거취를 정하기로 하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울산으로 향했다. 그래서 ‘삼호’라는 곳에서 태화강을 건너려고 할 때, 동자승이 나타나 마중을 하고 길을 안내했다. 경순왕은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고 뒤를 따랐는데, 지금의 울산대학교 정문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동자승이 몸을 날려 문수산 쪽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이에 경순왕은 “헐 수 없구나! 헐 수 없구나!” 하면서 흐느꼈

다. 때문에 그 곳을 ‘혈수정’이라 했고, 동자승이 문수산 쪽으로 사라진 곳을 ‘無去’라 이름했다.(《한국구비문학대계》8-12, 1986)

경순왕은 마지막으로 佛力을 빌어 나라를 바로 잡아보겠다고 친히 齋를 올렸다. 그런데 하루는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얼굴도 뺨뺨 얇은 노승 한 사람이 와서 임금님이 親供하는 자리에 말석이라도 좋으니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다. 경순왕은 이를 허락했고, 재를 마친 다음, 희룡 삼아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고, 증은 하곡현(울산의 옛이름) 문수산에서 산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임금님이 親供하는 재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하자, 중도 眞身文殊가 친공하는 재에 참석했음을 발설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는 몸을 날려 남쪽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경순왕은 당황하고 부끄러웠지만 부랴부랴 어가를 준비해 문수보살을 뒤따랐다. 그래서 지금의 두동면과 범서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고개까지 왔지만, 이미 거리는 상당히 떨어졌고, 경순왕은 ‘헛일이구나! 헛일이구나!’ 하면서 탄식했다. 때문에 이 고개를 ‘헛고개’라 하고, 그 밑에 왕이 잠시 머문 곳을 ‘지잔’이라 한다.⁸⁾

위 이야기는 《삼국유사》 감통편의 眞身受供條와 거의 같은 내용이다. 진신수공조에서는 경덕왕의 이야기로 나오는데 민중들의 기억 속에는 후회와 失期の 대명사인 경순왕이 대신 자리잡고 있다. 왕의 이름이 비슷한 데서 나온 착오일 수 있으나 설화 향유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경순왕의 이미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전혀 의심없이 전해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이름 앞에 ‘대왕’이 붙는 바위나 사당·건물 가운데 그 사실성을 입증하고자 역사상의 실재 대왕=임금이 흔히 緣故者로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신라 경순왕=김부대왕이 數的으로 가장 많다. 아마도 汎新羅金氏의 人口數와 비례할 것이다. 울산의 경우는 위의 지명설화에서 보듯이 경순왕이 거듭 등장하고

8) 서영대, 〈울산지역의 사찰설화〉《울산연구》 3, 98쪽, 2001.

있으니 울산지역의 ‘대왕’ 지명은 당연히 김부대왕에서 그 연고를 찾을 만하지만, 지역민들이 아는 경순왕은 神的 존재의 대왕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는 역사상의 나약한 인물일 뿐이므로 울산대왕암이 실재했던 대왕과 연결될 소지는 애초부터 없었다. 덕분에 울산대왕암은 이야기꾼이나 好事家들의 ‘자유로운’ 想像에 물들지 않고 單純 地名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드문 예에 속한다.

2) 海神 대왕암

대왕바위는 울산시 일산동에도 있는데, 줄여서 ‘대바위’라고 한다. 다른 이름으로는 龍墜岩이라고 하는데, 용이 승천하다가 그 바위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 증거로서 용의 피가 묻어 바위가 붉게 되었다고 한다. 바다에 있는 대왕(바위·神)이 곧 龍이라는 믿음은 여기서도 확인된다.

제3의 이름 ‘용덩이’도 그것이 역사상의 특정 대왕과 관련된 ‘유적’이 아니라 龍(海神)을 가리키는 ‘지명’임을 확인시켜준다. 즉 ‘용’과 ‘대왕이’⁹⁾(-대왕이-덩이)가 합쳐진 합성어 즉 ‘용+대왕’으로 보기 쉬우나 ‘龍(들, 무리)의 대왕’으로 혼동할 소지를 피해서인지 그러한 地名例는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¹⁰⁾ ‘용대왕’은 결국 ‘용왕’이니 지명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덩이’는 ‘돌대왕’란 말에서 보듯이 ‘덩어리’이거나 ‘서낭대왕’ 등에서 보듯이 일정 장소를 뜻하는 地名素다. 따라서 ‘용덩이’가 龍+文武大王(妃)를 암시할 소지는 없다. 이

9) 충남 부여군 부여읍 왕포리 大王浦의 가에 있는 마을 ‘대왕리[대왕리]’를 비롯 전국에 ‘대왕이’라는 지명은 여럿 있다.

10) 神과 大(王)의 겹말(同語反覆) ‘神王’은 安邊 성황신을 가리킨 예가 있으며, 경기도 감악산에는 ‘王神祠’가 있다. 신종원, 《한국 대왕신앙의 역사와 현장》, 39·300쪽, 2008 참조.

바위는 용바위이거나 대왕바위일 뿐이다.

울산의 대왕바위는 다른 아닌 ‘동해대왕’ 즉 바다의 神이다. 그런데 제사의 이름이 용왕제이고 보면, 이 海神은 또한 龍神이기도하다. 따라서 이를 향하여 용왕제를 지내고 별신굿도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대왕바위 역시 역사상의 어느 인물로 점차 비정되어 가고 있다.¹¹⁾ 관련 口述을 아래에서 보도록 하자.

[울산시 설화 6]

앞 설화가 끝나고 조사자가 먼저 울산시내의 전설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더니 이 전설을 구술하였다. 제보자는 향토사가(이유수, 男, 59세, 1984년 8월 10일)이므로 역사적인 고증을 하느라고, 구전 자료를 더러 빠뜨리는 경우도 있었다.

울산시 일산동(蔚山市 日山洞)에 울기 등대가 있는 그 산을 땡바위 산이라고 합니다. 땡바위산 맨 끝에는 대왕바위 카는 바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줄아서(줄여서) 땡바위라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용추암(龍墜岩)이라고도 지방 사람들은 불러 옵니다. 불러 오는데 지금까지 구전돼 내려오기로는 지금까지 문무왕(文武王)이 돌아가서(죽어서) 동해 용이 돼서 일본을 지키겠다. (1) [주]왜구의 침노를 막겠다는 말이다. 이래서 동해 용이 됐는데, 그 왕비께서도 역시 돌아가서 용이 돼가지고 그 용이 날아가지고 이 땡바위에 자무랴다(잠졌다). (2) [주]현지 노인들은 문무왕비와 관련을 모르고 그저 용이 승천하다가 그 바위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용추암이라고 한다고 한다. 그 증거로는 용의 피가 묻어 그 바위가 붉다고 한다. 그래서 땡바위라 칸다고 전해 오고 있습니다.(3)[주]땡바위를 慶尙北道 月城郡 陽北面에 있는 新羅 文武王 水中陵의 이름과 같아서 文武王 王妃의 水中陵으로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¹²⁾

11) 신종원, 《한국 대왕신앙의 역사와 현장》, 172~174쪽.

바다에 있는 大王(岩·神)이 곧 龍이라는 믿음은 여기서도 확인된다. 이와 다른 각편을 소개해보겠다.

(조사자 :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땡바위에서 한 300m 떨어진 곳에 그 서쪽에 보면 산봉우리를 그 술바위산(述岩山)이라고 합니다. [조사자: 술바위?] 술바위, 술바위산이라고 하는데, 이 술 쿠는 것을 이병도 박사 소론에 따르면 솟는다, 솟을, 거계서 나온 것으로 보고 승산 내지 신령한 산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더만요. 그대로 하면 바로 문무왕릉 이견대(利見臺)가 있고 감은사(感恩寺)가 있고 땡바위가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울산 땡바위 여계도 이견대 대신에 술바위산 이것이 그거하고 어느 정도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 지는데, 마야, 그렇게 보는 한 가지 이유는 술바위라고 그 이름 자체가 승산이다 카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일산봉에서 별신굿을 할 때 할 때 말이지요, (4)[주]옛날에 땡바위의 북편에 龍窟이 있는데, 이곳에 靑龍이 살면서 뱃길을 가는 사람들을 괴롭혀서 東海大王이 靑龍이 밖으로 못 나오게 큰 돌을 넣어 막았다고 하여 땡바위에 龍王祭를 지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일산진 별신굿을 할 때는 제단을 이 바위를 향해서 차린다고 한다. 모시는 신위(神位)가 있어, 그중에 술바위 선생이라 캐서 술바위 선생을 모시고 별신굿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술바위산도 신령한 산이고 그래 봐지고 있지요, 그라고 조금 또 서쪽을 내려오면 신라때 고찰(古刹)이 두나가 있습니다. 월봉사(月峰寺)도 있고, 또 하나 지금 월정사(月精寺)라 쿠는 절이 있고, 그 두 절이 다 신라말 때 절이라 이래 카는데, 그래 보면 땡바위하고 술바위산하고 그 절 하나하고 이런 것이 똑 그 저 문무왕릉에 따르면, 땡바위, 이견대, 감은사하고 똑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돼 있습니다.¹³⁾

善과 惡이 맞물려 서로를 필요로 하는 원초적 이야기이다. 위 인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8-12, 1986, 38쪽.

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8-12, 1986, 39쪽.

용문에서 밑줄 부분을 잘 보면, 당시 주민들은 아무도 문무왕(妃) 관련 유래를 모르고 있으며, 울산 대바위의 대왕은 곧 ‘동해대왕’이라고 명백히 나온다. 그리고 [주](3)의 해설에서 문무왕 수중릉과 이름이 같아서 그렇게 풀이하였다고 이미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아무래도 감은사와 이견대가 있는 경주의 대왕바위를 두고서 자신들의 바위를 문무왕이라고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울산의 대왕바위 역시 바위 → 동해대왕(海神·龍神) → 문무대왕비(人物神)라는 인물설화로의 발전양상을 답습하고 있다. 굳이 이치로 따지자면 ‘대왕바위’가 아니라 ‘왕비바위’라야 맞다.¹⁴⁾

울산 대왕바위가 문무왕비 능이라는 설의 발단을 추적해보겠다. 《한국구비문학대계》 편찬취재 당시 對談者는 향토역사와 지명에 해박한 이유수(1926~2007. 울산시 북산동 출생) 선생으로서 문무왕 ‘수중릉’과 이견대·감은사 등의 언급에서도 보듯이 그 자신이 신라사에도 밝은 분이다. 위 《한국구비문학대계》와 같은 해(1986년)에 펴낸 선생의 《울산지명사》 가운데 ‘대왕바위(大王巖)’·‘龍窟’ 조항을 보면 위의 대담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¹⁵⁾ 그런데 이 책에는 대왕바위=문무왕비릉 說은 이유수 선생 자신이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李永周 선생이 전한 내용을 金永福 선생으로부터 들었다고 되어 있다.¹⁶⁾ 즉 李永周 → 金永福 → 李有壽의 순서로 전해진 것이다. 모두 故人들이라 더 이상의 추적이나 시비를 가릴 방도는 없다. 그렇지만 문헌에 밝은 한 두 사람이 자신들 지역의 대왕바위에 역사성을 부여하기 시작했던 사실은 분명하다.

14) 다음 글에서 지적된 바 있다. 김송태, 〈울산 일산동 대왕암의 유래 고찰 - 호국 불교와 龍의 신통력을 중심으로〉 《鄉土史報》 13, 38쪽, 2002.

15) 이유수, 《울산지명사》, 221·222·953쪽, 1986.

16) “金永福翁談 李永周로부터 傳承되었다고 한다.”, 위 책, 952쪽.

울산대왕암=문무왕비릉 說은 1980년대 중반에 나타나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말하자면 하나의 ‘유물’[artifact]이다. 그러니까 이 유물이 만들어진 연대는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1980년대 중반’이란 시점은 구전 민속자료의 상대적 연대 측정 방법 (oral-folklore data dating method)으로 말하면 오히려 해당 유물의 下限線=最終時限[terminus ante quem]이 된다. 우리가 ‘80년대 이전의 한두 세대나 앞서는 人事를 확보한 것만도 다행한 일이다. 여기까지가 1980년대 중반의 상황이라면,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1872년 대원군 집권기에 편찬된 <울산목장지도>에는 ‘大洋巖’이라고 적혀 있다. 大正3년(1914)에 測圖, 이듬해에 製版한 <朝鮮地形圖> (No. 154 長生浦)에도 ‘大洋岩’이다.¹⁷⁾ 1976년에 편집, 1979년 인쇄한 국립지리원의 1/5만 지도에도 ‘대양바위’라고 나오니 위의 ‘대왕암’과 마찬가지로 다. 한편 1980년에 간행된 한글학회의 <<한국지명총람9>>(경남편Ⅱ)를 보면 아래와 같다.

대양-방우 [大洋岩, 해금강] 【바위】 어풍대 동남쪽에 있는 바위. (348쪽)

용당이[용추암] 종진방우 북쪽에 있는 바위. (349쪽)

역시 ‘대왕암’이 보이지 않으며, ‘대양바위’도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울산목장지도>나 <조선지형도>만 그대로 답습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지명총람9>>은 異稱을 빠짐없이 실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둘째, <<한국지명총람9>> 편찬 당시 민간에게까지 폭넓게 채

17) 참고로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조선지리지자료>>에는 ‘대왕암’·‘대양암’ 어느 쪽도 기록되지 않았다.

록하지 못 했다. 셋째, '대왕암'이란 이름은 80년대 이후 나온 말이다. 먼저 셋째 가능성부터 생각해보겠다. 필자(신종원)의 조사나 연구 결과 및 위에 인용한 《한국구비문학대계》類(이유수 version)에 따르면 '대왕암'은 있으나 '대양암'은 희귀한 예다. 그러므로 그것이 80년대 이후 急造된 지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앞뒤 사정을 고려할 때 굳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다. 이제 두 번째 가능성만 남으므로, 이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이미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도 거의가 '대양암'으로 굳어져 '대왕암'을 말하는 주민이 희귀했다고 볼 수 있다. '대양암'은 이미 19세기부터 문헌에 정착된 말로서 이 지명과 용당이·용추암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다시 셋째 가능성과 연결된다. 지명과 역사에 밝은 人士는 '대왕암'이 드물고, 뜻으로 보아서는 열등하다고 느껴서인지 - 여기에는 애항심도 적지않이 작용한다 - '대양'을 '대왕'으로 돌려놓는 동시에 그 '증빙' '사실'로서 문무대왕(+妃)을 제시하였다. 대왕신앙에 대한 역사나 내용 및 전국적 분포를 알 수 없었던 당시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들이 문무대왕(+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실제 통용되던 '대양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은 것은 '대양암'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의 바위 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다음은 왜 지도에서는 '대양암'으로 기록되었을까를 살펴볼 차례다. 아직 동일한 예를 찾지는 못했지만 '대왕'에서 '대양'으로 발음이 변해갔을 수 있다. 대원군 당시의 우리 선조들이나 일제강점기의 지도제작자들 또한 대왕신앙을 몰랐을 것이므로 오히려 명실상부한 '대양'쪽을 선호했을 것이고, 조선시대 내내 잡신을 '대왕'으로 이름 붙이는 것이 예법에 어긋나고 참람하다고 하듯이의 의도적으로 '대왕'을 버렸을 수도 있다. 뜻 또한 '대양'이 '대왕'보다 크니 좋은 말이

라고 판단하였을 법하다.

2011년에 오면 설화는 더욱 발전(?)하여 《삼국유사》문무왕법민조의 문무왕이 하였다는 유언이 그 왕비의 말로 둔갑하였다.

대양바위 Daeyangbawi [異] 대왕암, 땡바위, 용추암, 大洋岩시의 동구 일산동에 위치한 바위이다. 땡바위라고도 부르는 대왕암은 신라시대 문무대왕의 왕비가 죽어서도 호국룡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無根)고 하여 바위섬 아래에 묻혔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일설에는 용이 승천하다가 떨어졌다고 하여 龍墜巖이라고도 부른다.¹⁸⁾

‘대왕암’이 보통명사라는 것을 알면 ‘대양암’이란 지명이 오히려 예외적이고 희귀한 예다. 과연 ‘대양암’이라 부르던 시절보다 더 이전에는 ‘대왕암’이 바른 이름이었다.

울산 대왕암에 대한 기록이 가장 먼저 보이는 자료는 오한 孫起陽(1559~1617)의 《磬漢先生文集》이다. 그 3권에 息城君 李雲龍의 墓誌가 실려 있는데 정유재란(1597)의 전황을 기록하는 가운데 문제의 대왕암이 나온다.

12월에 楊經理 등이 가등청정을 울산에서 진압하였다. 公은 스스로 며칠간 水軍을 정비하여 대왕암에서 나가 싸웠다.¹⁹⁾

같은 내용을 澤堂 李植(1584~1647)도 息城君李公墓碑銘에서 쓰고 있다.

18)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 175쪽, 2011.

19) 十二月楊經理等壓清正于蔚山 公自延日整舟師 進戰于大王巖

정유년 ... 겨울에 중국 군대가 道山을 포위하자, 공이 대왕암에서 배를 인솔하고 나아와 挾擊하였는데, 중국 군대가 퇴각하였으므로 公도 물러 나왔다.²⁰⁾

다시 200여 년 뒤 울산의 대왕암은 향토 선비의 詩文에 나온다. 礮溪 李養吾(1737~1811)는 1803년 3월에 반구대, 집청정, 장천사, 반구암, 양정, 동축사, 월봉사, 대왕암 등을 보름에 걸쳐 유람하고 <柳殷模 君과 함께 바다를 보고 대왕암에 오르다(與柳君殷模觀海登大王巖)>라는 시를 남겼다. 그 첫 구절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넓은 바다(大洋) 서쪽 가 대왕암에
누가 왜구 막을 말을 보내주실까.²¹⁾

위 시구를 선입견 없이 읽는다면, 이러한 동해안의 景勝에 왜구 = 왜적이 詩想으로 떠오른 것 그 以上도 以下도 아니다. 그것은 생략된 그 다음 구절이 落花·芳草·滄溟·壯觀 등으로 詩題가 발전하는 것을 보아도 알 만하다. 다른 가능성으로 이양오는 향토사에 밝은 선비이니만큼 오히려 정유재란 때 이곳에서 왜군을 물리친 일이 연상되었을 법도 하다.

이양호 일행에 동참한 김상규도 <대왕암>이란 시를 남겼으니 이 때까지 문제의 바위 이름은 '대왕암'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양호의 시에 '대왕암'보다 먼저 '大洋'이 아울러 擧名되는 것을 보면 발음도 비슷한 이 두 이름이 언젠가는 바뀔 운명이 접쳐지기도 한다.

이양호보다 두 세대 뒤의 인물 李鼎和(1811~1860)도 <대왕암>이

20) 冬 天兵圍道山 公自大王巖進舟挾擊 天兵退 公亦退 (택당선생집 제10권)

21) 大洋西畔大王巖 誰送飄飄禦寇驂

란 시를 남겼다.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왕의 옛 자취 묻는 이 없고
가을 팔월에 서성이며 찾던 칼을 매만지다.²²⁾

비로소 대왕암을 역사상의 임금, 그것도 신라의 왕과 연결시키고 있지만 그가 어느 왕인지는 여전히 막연하다. 문헌이나 지명에 보이는 대왕암·大王浦·大王藪 등의 ‘대왕’이 역사상의 어느 대왕인지 궁금해하는 것은 人之常情이다. 위 시는 신라의 대왕이 누구인지를 주변의 사적과 연결시켜 어림잡지 않고 ‘대왕’을 일단 역사상의 인물로 보기 시작한 단계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추정이 識字憂患에 지나지 않는 듯 그 뒤 어느 누구도 문제의 ‘대왕’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해 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왕’조차도 無意味하거나 沒理解한 수준에 머물러 이후 ‘大洋’에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다.

경주 감은사 앞바다의 대왕암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것이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울산 ‘대왕암’도 서서히 복권되기 시작하였다. 1970, 80년대까지 ‘대왕암’이란 이름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살펴본 지도에나 口傳 어디를 보아도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대왕’이란 이름 자체가 ‘대왕’으로 연결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울산대왕암은 경주의 그것에 感發되어 ‘새로이’ 탄생된 지명이다. 1980년대에 울산대왕암의 지명 유래를 말하던 이들이 조선후기의 詩文에 나오는 그것을 알았다면 그 오랜 유래를 증명하기에 더없이 좋은 자료를 인용하거나 소개하지 않을 리가 없다.

22) 羅王古蹟無人問 撫劍徘徊八月秋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경주대왕암의 위력은 실로 대단하다. 동해 바닷가에서 보이는 작은 섬이나 바위를 역사상의 어느 임금 무덤으로 비정하려는 시도는 울산대왕암뿐이 아니다.

강원도 고성군의 金龜島(옛이름은 草島)는 1990년대부터 고구려 광개토대왕릉 또는 제11대 東川王(재위 227~248년)의 무덤이라는 설이 대두되었다. 물론 전혀 근거없고 어이없는 이야기지만,²³⁾ 이 섬에서 기우제를 지낸 사실이 크게 의미부연된 것 같다. 그것은 용왕→王과 관련되기 때문에 역사상의 실재했던 임금을 떠올릴 소지는 내재해 있으며, ‘금구도’라는 지명도 보기에 따라서는 심상치 않다.

울산대왕암=문무왕비릉설은 이러한 유행의 단적인 예로서 ‘대왕’을 실재했던 인물로 보려는 욕구에 불과하고, 그러한 의미부여 전통과도 맥이 닿는 현상이다. 이제 문무왕비설의 취약점이 드러나자 火葬을 했다는 신라의 문무왕, 효성왕, 선덕왕 등이 차례로 그 후보에 오르게 되었다. 동해바다에 ‘유골을 뿌린(散骨)’ 장례절차를 임의로 ‘유골을 모신(藏骨)’ 것으로 해석한 것은 일찍이 ‘문무왕 대왕암’ 연구에서 본 前轍을 그대로 밟고 있다.²⁴⁾ 동해에 산골한 이상 무덤이라 할 무엇이 없기 때문에 誌石 같은 것이 있을 리 없고 그 대신 불상을 조성한 예를 우리는 신라 성덕왕 때 金志誠(金志全)이 조성한 미륵상과 아미타상의 造像記에서 잘 볼 수 있다. 藏骨한 왕릉을 찾기로 하면 우리는 동해에서 적어도 세 곳의 왕릉을 찾아야 할 것이며, 문무왕비릉설과 같이 그 왕비까지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왕/

23) 고성군, 《고성군 금구도의 고고·역사와 전승설화》, 2008. 이상수·고희재, 〈高城 금구도城址에 대한 고찰〉 《嶺東文化》 10, 관동대학교, 2009.

24) 김송태, 앞글, 33~34쪽.

왕비릉은 동해의 어딘가에 여섯 군데나 있어야 한다.

6. 결론

울산 대왕암의 지명전설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이곳의 '대왕'이 곧 '동해대왕'이라고 명시되었다. 2) 그 대왕이 형상화하여 靑龍으로서 뱃길에 해코지를 하는 악룡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승천하다가 바위에 떨어져 죽은 悲運의 龍이기도 하다. 3) 이러한 전설은 단순히 口傳이나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龍王祭·別神祭로 儀禮化 되었다. 그러므로 海神=大王이 龍으로 형상화되어 인간의 염원이나 해석에 따라 善惡의 이중성을 띠며, 동해지역의 중요한 神格으로서 정기적으로 위함을 받는다. 이것은 海神=대왕신앙의 원초형을 잘 간직하고 있어서 울산이 海神=대왕신앙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 된다.

울산 대왕암에 대한 기록은 정유재란 기록에 처음 나타나며, 韓末부터 1970년대까지는 '大洋'암이 유통되었는데 이 表記는 '大王'의 變化形·異形이라 하겠다. 이 표기만 유통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누구도 문제의 바위를 역사상의 어느 대왕과 연결된다고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 《한국구비문학대계》나 《울산지명사》가 간행되었다. 이때 '대왕암'의 이름이 '復權'되면서, '대왕00'라고 부르는 근거를 모색하였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주의 문무왕대왕암이 비교의 대상이 되어 주변 자연환경도 이견대-솔바위산, 감은사-월정사와 같이 대비 시키고 陵主는 문무대왕이 아니라 그 妃로 낙착되었다.

필자가 볼 때 울산 대왕암의 지명전설은 원초형 그 자체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으며, 문무왕이나 김부대왕을 자의적으로 끌어들이지 않아 오히려 역사상으로도 엄정성을 견지하여 왔다. 경주의 대왕암 조차 이미 고려시대부터 역사에 오염된 채로 지금까지 굳어져 내려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역사상의 어느 임금 또는 왕비와 연결시킬수록 경주 대왕암의 亞流에 지나지 않으며 世態에 迎合한 것이 되어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 적어도 규모로 볼 때도 울산 대왕암과 경주의 그것은 비교조차 되지 않으며, 경주의 대왕암은 규모가 적은 대신에 그 형태가 무덤과 흡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온 것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문선》

《택당선생집》 제10권.

(1872), 〈울산목장지도〉.

(1914), 〈朝鮮地形圖〉 No. 154 長生浦.

필사본 《조선지리지자료》

(1979), 국립지리원, 〈1/5만 지도〉.

한글학회(1980), 《한국지명총람9》(경남편Ⅱ).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6), 《한국구비문학대계》 8-12.

이유수(1986), 《울산지명사》.

서영대(2001), 〈울산지역의 사찰설화〉 《울산연구》 3.

김송태(2002), 〈울산 일산동 대왕암의 유래 고찰 - 호국 불교와 龍의 신통력을 중심으로〉 《鄉土史報》 13.

신종원(2008), 《한국 대왕신앙의 역사와 현장》.

고성군(2008), 《고성군 금구도의 고고·역사와 전승설화》.

이상수·고희재(2009), 〈高城 금구도城址에 대한 고찰〉 《嶺東文化》 10, 관동대학교.

국토지리정보원(2011), 《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

【Abstract】

The Name and Origin of the Daewangam (Great King Rock) in Ulsan city

Shin, Jong-won

Daewangam (Great King Rock), located at the seashore of Ulsan city is also called by the name of Yongchuam (Fallen Dragon Rock), because it is believed that a dragon, while ascending to Heaven fell at this spot. The sacred rock of the seashore is associated with the cult of Dragon, and it is assumed that the name 'daewang ('Great King) refers to a sea-god. Historical materials and placenames bearing the word 'daewang' do not refer merely to the sea-god but also the presiding deity of river, mountain and shrines. Daewang Rock of Gameun Temple at Gyeongju is believed to be the burial ground of King Munmu who unified the Three Kingdoms in the 7th century.

The first reference about Ulsan Daewang Rock is found in the texts composed during the Hideyoshi invasion of Korea in the 16th century. However, it does not shed any light on the reason why it is called 'daewang', and perhaps, it is because of this its name changed as Daeyangam (Great Ocean Rock) sometime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continued until 1970's. One may

consider it as a transformation of the original name.

Ushering into the 1980's the original name of the rock (daewang) was rehabilitated, and the city officials started to invent various theories to support their contention. One such theory was that the place served as the burial ground for the queen of King Munmu. When the weakness of the theory about the consort of Queen Munmu was exposed, names of other kings as King Munmu, King Hyosung and King Sondok was suggested, and it was argued that their cremation might have taken place at this place.

Theory about the dedication of Daewang Rock to the consort of King Munmu got textual validity and it became widely prevalent after it was mentioned in the local gazettes, the books about the origin of place-names. One can legitimately doubt the authenticity of this theory, and consider it as fictitious and illogical. Although there is no authentic historical data to explain the origin of this name, one may surmise that it is derived from the fact that 'god' and 'daewang' are more or less synonymous expressions in Korean language. The rock refers to its sacred character, and it may have been associated with some deity.

【Keywords】 Daewangam (Great King Rock), Daeyangam (Great Ocean Rock), Yongchuan (Fallen Dragon Rock), Ulsan city, King Munmu, Queen Munmu, cremation

□ 성명 : 신종원 (辛鍾遠)

전자우편 : shinjw@aks.ac.kr

□ 이 논문은 2012년 11월 30일 투고되어
2012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하고
2012년 12월 17일 편집회의에서 게재 결정되었음